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

이경희* · 김윤경, 오해순, 이관이, 김지연, 김수희, 최현주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원

I. 서론

오페라는 음악, 문학, 연극, 무용뿐만 아니라 의상과 같은 미술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종합예술이다. 오페라 의상은 이러한 복합적인 자극에 대해 관객들로 하여금 그 작품의 시각적 해석 및 극중 인물의 성격, 인물들간의 관계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19세기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마을을 배경으로 한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이므로 그 시대의 민속 의상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는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효과적인 무대의상을 디자인하기 위해 국내외 공연 작품 및 영화화 된 작품의 분석과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19세기 말 이탈리아의 시대적 배경 고찰 및 시칠리아 섬의 민속 의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극 중 인물의 캐릭터에 맞는 디자인을 제시함으로서 오페라의 무대의상 디자인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작품과 의상 분석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19세기 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마을 부활제 날을 배경으로 하여 5명의 등장 인물과 그들 사이의 사랑과 질투, 시칠리아의 정열을 담아 내고 있으며 이탈리아 남부의 향기를 잘 표현한 지방색이 강한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이 된 19세기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민속 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복은 단순한 정장 스타일의 의복으로 자켓, 조끼, 바지, 셔츠의 근대화된 복식 형태의 특성을 지니며 흰색, 검정, 브라운 계열의 색채와 가장자리 트리밍이나 자수, 모자, 신발 등을 통해 민속적 전통성을 나타낸다. 여성복은 풍성한 주름의 블라우스와 조끼, 자켓, 스커트를 기본으로 한 X자형 실루엣에 솔, 머리 수건, 앞치마, 벨트로 구성된다. 흰색, 옐로우, 오렌지, 레드, 그린, 브라운 계열의 색상과 가장자리의 러플 장식, 허리 부분에 포인트로 사용되는 리본 장식, 규칙적인 배열의 양식화된 문양으로 이탈리아 남부의 이미지를 느끼게 하며 소재는 면, 벨벳이 주로 사용된다.

III. 오페라 무대의상의 디자인 발상

19세기 시칠리아 섬 민속 의상의 조형적 특성을 토대로 극의 분위기, 등장 인물의 성격, 인물들간의 관계를 통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상 디자인을 제시한다. 먼저, 로라의 경우 옛 애인인 투리두를 잊지 못하는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인물로 옐로우 계열의 벨벳 소재와 전체적으로 화려한 디테일 장식을 통해 정열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 반면 투리두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산투자의 경우는 톤이 낮은 카키 계열의 색채를 통해 그녀의 절망적이고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였으며 부분적인 단 장식을 통해 투리두의 사랑을 원하는 그녀의 내적 심정을 표현한다. 투리두의 어머니 루치아의 경우는 흰색과 짙은 블루를 기본으로 하여 넓은 공단 테이프의 단 장식으로 50대 중년의 넉넉한 모습을 수수하고 깔끔하게 표현한다. 남자 주인공의 경우, 옛 애인 로라를 잊지 못하는 투리두는 조끼와 자켓, 바지 옆선의 트리밍을 통해 시대의 복식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부드러운 타이와 셔츠의 소매 주름을 통해 로맨틱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알피오의 경우 그의 직업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전체적으로 브라운 카키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였으며 레드 계열의 허리 벨트를 통해 강인한 마부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IV. 결론

이 연구는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무대의상을 제시하기 위해 극의 시대적 배경과 민속 의상을 토대로 극중 인물의 성격 분석과 무대의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디자인 발상을 하였다. 전체적인 실루엣과 아이템, 색채, 소재는 역사적 근거를 기본으로 하면서 극중 인물의 성격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색채 선정과 디테일 장식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소재는 조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무대예술 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무대의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무대의상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